

# 나는 간다

정한샘

나는 간다 예배하러 간다 억눌린 그 땅 일어나라고  
나는 간다 예배하러 간다 시든 산천 초목 물오르라고  
나는 간다 예배하러 간다 골짜기 마른 물 생명수 되라고  
나는 간다 예배하러 간다 하늘 문 활짝 열고 아버지 오시라고

나는 간다 살러 간다 얼어붙은 마음에 봄바람 불으러  
나는 간다 살러 간다 엉겨 붙은 온 몸 설움 따스이 녹이러  
나는 간다 살러 간다 막힌 눈물 구멍 뚫어 뚫으러  
나는 간다 살러 간다 나의 콩 한 쪽 나누어 먹으러  
나는 간다 살러 간다 나의 생명 젖줄 나누어 주러  
나는 간다 살러 간다 나의 그 나라 보여주러

나는 간다 울러 간다 내 언니 아픔 쓸어 주러  
나는 간다 울러 간다 내 동생 설움 대신하여  
나는 간다 울러 간다 내 아버지 대신 통곡하러

나는 간다 예배하러 간다 살러 간다 울러 간다